

경제지표 (%)

|                  |                 |                  |
|------------------|-----------------|------------------|
| 코스피              | 코스닥             | 원·달러 환율          |
| 3149.93<br>▲1.64 | 980.29<br>▲1.16 | 1098.30<br>▲1.30 |

금리·유가(01.13) (%)

|              |         |       |             |       |       |
|--------------|---------|-------|-------------|-------|-------|
| CD(91일)      | 0.67    | ▲0.01 | 국고채(3년)     | 0.97  | ▼0.01 |
| 플금리          | 0.49    | ▲0.01 | 회사채(3년)     | 2.15  | ▼0.01 |
| 취발유(01.14)   | 1441.64 | ▲1.20 | 두바이유(달리/배럴) | 54.96 | ▼0.40 |
| 고급취발유(01.14) | 1678.28 | ▲1.54 | WTI         | 52.91 | ▼0.30 |

환율 \* KEB하나은행 제공

|            |         |       |           |         |       |
|------------|---------|-------|-----------|---------|-------|
| 미국(USD)    | 1098.30 | ▲1.30 | 스위스(CHF)  | 1237.66 | ▲2.65 |
| 일본(JPY100) | 1055.55 | ▲0.18 | 캐나다(CAD)  | 865.79  | ▲4.35 |
| 중국(CNY)    | 169.87  | ▲0.13 | 뉴질랜드(NZD) | 791.11  | ▲2.53 |
| 유로(EUR)    | 1334.76 | ▼1.11 | 홍콩(HKD)   | 141.66  | ▲0.18 |
| 영국(GBP)    | 1497.59 | ▼1.84 | 브라질(BRL)  | 207.25  | ▲1.17 |

**오늘의 고사성어**

**德 輶 如 毛**  
덕 유 여 모  
덕은 깃털처럼 가볍다는 뜻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가벼운 깃털을 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는 말

**德 必 有 隣**  
덕 필 유 린  
덕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말

**陶 犬 瓦 鷄**  
도 견 와 계  
흙으로 구워 만든 개와 기와로 만든 닭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의 비유

출처: 가가대소 성어정리  
편자: 왕원근(王元根, 왕필)

코로나 속 제주여행 즐기기  
'캠핑·차박·백패킹' 관심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 확산 사태 이후 제주여행과 관련해 '캠핑' '차박' '백패킹' 등 야외에서 소수가 즐기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관광공사가 14일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제주관광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여행과 관련한 키워드에서 '캠핑' '오토캠핑' '백패킹' '캠핑카' '오토캠핑' 등 야외 활동에 대한 언급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등 소수 인원으로 즐기는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언급이 높았고, 힐링숲 등 힐링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애월·한림 지역에서는 유명 카페와 체험 활동 등의 키워드가 많았고, 베이킹 및 쿠키 클래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에서 인기 여행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나, 그 지역에서의 활동은 보다 개별적인 체험활동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공사는 설명했다.

고선영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캠핑 등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맞춤형 체험 활동을 선호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 관광 콘텐츠 발굴, 제주관광의 트렌드 변화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뉴스**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수원갈비 맛집



맛있는 동네 산책

유성호  
맛 칼럼니스트

수원은 서울서 가까운 도시다. 기차를 타면 20분, 전철을 타도 3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수원을 거쳐 가는 1호선 신창행 전철에 급행이 생기면서 생활권은 더욱 가까워졌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수원 행까지 거리는 약 40여km다. 성인 남자가 1km 걷는 시간을 약 16분으로 치면 40km를 걸으려면 11시간쯤 필요하다. 중간에 쉬고 밥 먹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수원까지 열서너 시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다. 걸어서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도보 일일 생활권이다.

사도세자국왕급으로 추존한 효자 정조 서울에서 수원을 가장 많이 다녀온 조선의 임금이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수원 화성을 지은 정조다. 정조는 재위하는 동안 수원 화성을 13번 다녀왔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안장한 현릉원(고종 때 웅릉)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도하는 의미로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묘호를 수은묘라 했다. 왕권을 이어받은 정조는 사도세자의 시호를 장헌(莊獻)으로 올리고 수은묘를 영우원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사당 이름도 경묘궁이라고 바꿨다.

1789년 영조의 부마이고 정조의 고모부였던 금성위 박영원이 '영우원의 묘역이 매우 비좁고 초라하여 서둘러 천봉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원 화성으로 옮길 것을 결정했다.

영우원의 수원 천봉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해 7월 11일 천봉이 결정되자마자 정승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여 김익을 영의정으로 삼아 총호사로 임명하는 등 천봉 조직을 갖췄다. 8월 9일에는 새로운 원의 이름을 현릉원(顯陵園)으로 정하고 영우원 봉분을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10월 5일 재궁을 가마에 실은 천봉 행렬은 옥섬에서 한강에 설치한 부교를 건너 과천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수원 신읍지에 머물렀다가 신시(申時)에 현릉원에 도착해 정자각에 모셨다. 정조는 현릉원을 균왕의 지위에 준할 정도로 단장시켰다. 물론 사도세자가 왕을 재내지 못했으므로 묘를 지키는 석물과 혼유석, 지석 등은 간소했다.

사도(장헌)세자는 마침내 고종 광무 3년(1899) 10월 10일에 왕으로 추존됐다. 묘호가 장조(莊祖)로 올려졌으며 현릉원은 용릉으로 격상됐다. 현재 화성시 태안읍 안평리 산의1이다. 원래 현릉원 터에 살던 주민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주했다. 그곳이 바로 팔달산 아래 신도시 화성, 현재 수원이다.

화성은 수원을 먹여살리는 '문화역거리' 정조 하면 수원 화성을 떠올리게 된다. 정조에게는 현릉원의 수호 도시로 화산 북쪽 팔달산 아래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화성 축성은 1794년(정조 18) 봄에 착수, 2년 반이 걸려 1796년 가을에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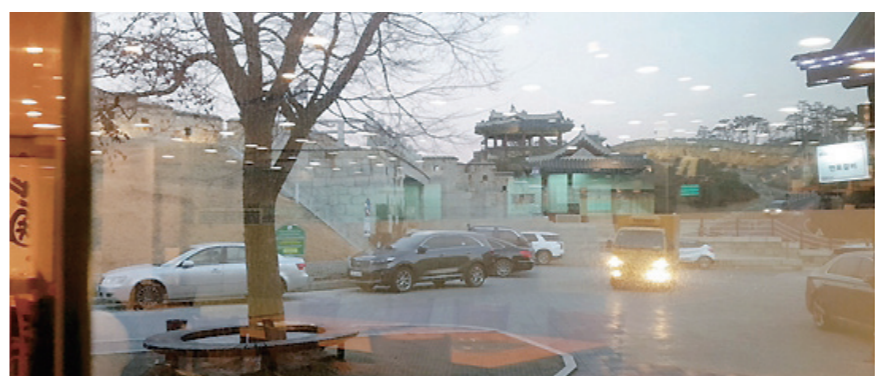
정조는 왕위에 머무는 동안 매년 사도세자 탄일을 전후해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수원 행행을 했다. 1795년 을묘년은 해경궁 흥씨의 회갑을 맞아 다른 때와 달리 성대하게 펼쳐졌다. 해경궁 흥씨와 사도세자는 동갑내기였으므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행행으로 해석된다.



아름다운 수원화성의 정안문 야경. 정조가 능행차를 할 때 지나는 성문이라서 다른 곳보다 크고 화려하다. 성곽을 따라 우측으로 가면 멀리 화홍문이 희미하게 보인다.



연포갈비 대표 메뉴는 한우생등심인데 이날은 특별히 살치살만 골라 내왔다. 최고의 조망을 가진 곳에서 서울 강남 지역 가격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가격에 최상급 한우를 맛볼 수 있다. 사진 우측면 아래는 봉주현대대(왼쪽)와 어머니 이윤재 여사.



'연포갈비'는 2층에서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전망이 보이며 1층 창가에 앉으면 최고의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식당이다.

정조 화성능행차 코스 화홍문 앞 '연포갈비'

이때 모든 기록을 '원행음모정리의례'로 남겼다. 의례 안에는 '반차도'라고 해서 원행 당시 행차 모습을 그림으로도 남겼다. 반차도를 통해 당시 의복과 군사 병력 배치, 서열과 의전 등을 엿볼 수 있다. 김홍도가 그린 이 반차도는 청계천 변에서 타일 벽화로 만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2016년 을묘년 원행을 복원했다. 수원 능행은 서울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출발해 한강 배다리를 건너 안양, 의왕지역을 지나 수원의 지지대 고개를 통해 화성행궁까지 이르렀던 45km 구간에서 열린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을묘년 행차를 2년 전부터 준비했다. 특히 능행 주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을묘년은 정조 즉위 20년이란 의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머포먼스'로 후대에 평가되고 있다. 효심, 애민정신, 탕평의 리더십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둔전농사용소 때문에 생겨난 수원갈비 이 같은 정조의 마인드가 모두 녹아든 것이 수원 화성이다. 수원 화성의 백미는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에서 바라본 시내 야경이다. 또 우아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서북공심돈은 야경 출사 포인트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곳을 지나면 나오는 장안

문을 통해 조금만 걸으면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이 나온다.

화홍문은 수원 화성의 북쪽 수문으로 일명 북수문이라고도 한다. 수원천(당시 광고천)이 여름에 자주 범람하자 성을 쌓으면서 문루 아래에 물이 지나는 수문을 만들었다. 한국전쟁 당시 성과 상당수가 파괴됐지만 화홍문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됐다. 화홍문 위쪽으로는 방화수류정이 있고 옆으로 북암문이 있어서 성 밖 커다란 연못인 용연에 다다를 수 있다.

방화수류정은 성과의 동북쪽에 불뚫 솟아있는 바위 위에 자리하고 있다. 용도는 화성 동북쪽 군사지휘부인 동북각루로 만들었다. 그러나 높은 위치에서 화홍문과 성과 아래 용연 등을 조망할 수 있어 정자 역할도 겸했다. 화홍문과 함께 조선 시대 건축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20~30년대 사진을 봐도 화홍문은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변 경관은 지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 화홍문 우측으로는 소나무 군락이 있을 뿐 민가나 건 축물은 보이지 않았다. 멀리 장안문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소나무 군락은 모두 사라지고 주택과 상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한편 수원에서 갈비가 유명해진 이유는

수원에 전국 3대 우시장이 설 정도로 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화성을 지립 능력을 가진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조는 주변에 대단위 둔전(屯田)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 정조는 농사를 위해 농민들에게 벼 종자와 소를 나눠줬다. 대신 쌀의 절반과 3년마다 소 한 마리씩을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늘어난 소를 처분하기 위해 자연스레 우시장이 형성됐다. 덩달아 소고기가 주요 식재료가 됐고 갈비가 지역 특화 메뉴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해장국에 소갈비를 넣어 팔던 것을 소금양념을 한 갈비로 메뉴를 만들어 판 것이 수원갈비로 자리 잡았다. 수원갈비의 특징은 한 대 길이가 13cm, 무게만도 250g에 달하는 커다란 갈비와 소금양념이다.

아름다운 화홍문 방화수류정 감상하며 식사

'연포갈비'는 화홍문 우측에 있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 화홍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낮엔 늠름한 자태로 서 있다가 야간이 되면 오색 조명이 비추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갈아입는 화홍문과 그 뒤로 보이는 방화수류정 역시 건축미가 빼어난 정자다. 이쯤 되면 '연포갈비'는 최고의 조망을 가진 갈비집이라고 해도 손색없다. 게다가 그 옛날 정조가 능행차 때 이 길을 지났다. 지금도 수원화성 능행차 마지막 코스에서 '연포갈비' 앞을 지나 연무대로 향한다.

'연포갈비'는 개업한 지 20년이 넘는 저력 있는 갈비집이다. 봉순군 1대 대표와 이윤재 여사가 문을 열었고 지금은 빙산 국가대표 코치 출신인 봉주현 씨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봉 대표는 적극적으로 루방으로 들어가 바닷바탕 배웠다. 스포츠맨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 배우려는 욕심으로 지금은 어느새 노련한 중견 외식업자가 됐다.

'연포갈비'는 한우생등심과 생갈비, 소금, 후추, 꽃소금, 참기름, 다진 마늘 등으로 간을 한 연포갈비가 주력이다. 한우생등심에는 등급이 우수한 살치살이 따라 나온다. 생등심과 육회는 한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국산 소고기를 쓴다. 밑반찬으로 묵나물무침, 나물무침, 양파장아찌, 샐러드, 상추무침, 백김치, 고구마정과, 잡채, 물김치 등 웅만한 세미 한정식급 상차림이 계절마다 조금씩 바뀌면서 제공된다.

이달 6일에 '대항통닭'의 최용철 대표와 함께 '연포갈비'를 찾았다. 최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15년 전 필자와 같이 일한 인연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그 역시 수원 통닭골목이 형성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 첫 점포인 '대항통닭'을 이어받은 2세대 외식업자이다. '대항통닭'과 '연포갈비'는 창업 1대와 2대가 지금도 함께 경영하면서 내림 손맛을 전수하고 있다. 두 메뉴가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성장한 데는 이같이 손맛을 이으려는 노력이 숨어 있다. 두 곳 모두 수원화성을 둘러보고 여정을 정리하면서 식사하기 좋은 곳이다.